강진보건소, 암 생존자 가정 찾아 농촌 일손 돕기 봉사

무안군, 농번기 맞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전개

강진군보건소가 최근 대구면 암 생존자(최00) 사후관리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암 치료 이후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일상 회복을 지원을 받고 있는 사후관리 대상자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보건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추진됐다.

특히, 이번 활동은 단순히 일손을 보태는 생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암 치료 이후에도 철저한 건강관리와 생계 활동을 동시에 이어가야 하는 대상자의 생활 속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살피고 따뜻한 위로와 정서적 지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돼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보건소 직원들은 무더운 비닐하우스 안에서 토마토를 수확하고 곁순을 제거하는 등 막바지 수확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직원들은 대상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정성을 다해 일손을 도왔으며, 대상자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손길이 실질적인 영농 지원으로 이어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봉사활동을 지원받은 대상자는 “하우스일이 늘 힘에 부쳤는데 이렇게 직접 보건소 직원들이 찾아와 내 일처럼 도와주니 너무나 감사하다”며 “보건소에서 건강도 살펴주고 농사일까지 함께해 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농촌지역에서는 매년 농번기마다 심각한 인력난으로 인해 작은 일손 하나도 절실한 실정이지만, 암 치료 이후 신체적·정신적 회복 과정과 함께 생업까지 이어가야 하는 대상자에게는 영농활동을 지속하는 데 대한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

/전운재 기자

농촌 봉사활동 사진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무안군은 양파와 마늘 등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영농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소속 공무원과 자원봉사단체의 참여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 일손돕기는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고령농과 영세농, 독거농가, 한부모가정 농가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의 자원봉사를 연계해 취약농가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2026년 농촌 일손돕기는 4월부터 6월까지 운영되며, 양파·마늘 등 수확 지원을 위해 8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용운 기자

목포문화재단, ‘2026 꿈의 향연’ 기획공연 성황

꿈의 오케스트라 목포, 전통예술과 함께 화합의 무대 사진 /목포 시청 제공

목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목포’가 최근 유달유원지 스카이워크 특설무대에서 열린 ‘2026 꿈의 향연’ 어울림 기획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목포시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목포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공연은 ‘목포의 내일은 어울림이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오케스트라와 판소리, 사물놀이가 함께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세대와 장르를 넘어선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오케스트라 자립거점 기관 전국 동시 프로젝트 ‘꿈의 향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목포문화재단은 창단 16주년을 맞은 ‘꿈의 오케스트라 목포’를 통해 지역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교육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정기연주회를 통해 시민들과 다시 만날 예정이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팀 추가 모집

전남 함평군이 지역 청년들의 공동체 활동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한 ‘2026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팀을 추가 모집한다.

함평군은 “청년들의 공동체 활동을 독려해 지역 상생을 지원하는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팀을 추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활성화에 관심 있는 청년단체(팀, 법인 등)다. 단체는 사업 취지에 따라 5인 이상의 청년(19~49세)으로 구성하되, 그중 60% 이상은 함평에 거주해야 한다.

모집 분야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연계 ▲취업 역량 강화 등 일자리·창업 ▲공연·전시 등 주민 참여형 문화·예술 ▲봉사활동 등 총 4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단체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함평군청 인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청 4층 인구경제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군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청년단체에 과업 수행비 6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문수 기자

영암군, 공공심야약국 2곳으로 확대 운영

영암군보건소가 심야 시간대 군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확대 운영한다. 군은 기존 영암읍 푸른약국에 이어 올해 삼호읍 보람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군민들은 영암읍과 삼호읍에서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공공심야약국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 구분 없이 연중 운영된다.

약사가 상주하며 의약품 판매는 물론 복약지도와 방문·전화 상담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영암군에는 푸른약국과 보람약국 등 2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다.

군은 야간과 휴일에도 군민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가까운 곳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 향상에 힘쓰고 있다.

이희숙 영암군보건소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를 통해 야간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신안군·농진청, 자은땅콩 생산성·품질 고급화 추진

신안군은 최근 신안군 땅콩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작목별 영농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실과 협력하여, 땅콩 재배 농가가 매년 겪는 수량 감소와 연작피해 같은 주요 영농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컨설팅에서는 맞춤형 토양관리 및 병해충 관리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농촌진흥청 분야별 최고 농업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재배기술, 병해충 및 토양관리, 농약 안전사용과 현장연시 등 핵심 기술을 집중 컨설팅했다.

이를 통해 원인 규명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이 제시되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신안군 자은면에서 육성 중인 자은땅콩은 기능성 강화와 윤작 재배를 통해 대파 연작피해를 줄이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태 기자